

에너지 국감...한전 재정 건전화·한수원 '체코 원전' 공방

한전KDN 지분 매각해 적자 완화...송전망 신속 건설 위해 특별법 통과를 체코 원전...“정보 공개 불투명” vs “국책사업 사기극 폄하 옳지 않다” 공방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보호·최신기술적용 누락 지적도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한전의 재정건전화 방안 및 송전망 건설문제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한전의 막대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지구 노력 중 하나인 '한전KDN 지분매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구 동구) 의원은 “한전 KDN 지분매각 결정이 이사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자체를 철회할 생각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분 매각이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한전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 측과 교감을 통해 지분매각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한전이 한전KDN으로부터 지난 5년간 2500억원가량을 배당 받는 등 한전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성장가능성 등 경제·공익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같은 대규모 지분매각이 한전의 재정건전화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이 평균 6년가량 늦어지고 있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관련 산업 전체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송전망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송전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향후 송전선로 건설이 속도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은 한전의 재정건전화 방안 중 '토지재평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한전이 토지재평가를 통해 부지가격을 7조원 이상 높여 부채액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해당 토지들은 영업활동에 쓰여 애초에 팔 수 없는 부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여야의 갈등도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체코 원전 관련 정보를 한수원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폄하하는 표현들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담평수주, 현지조달율 60%,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문제 등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체코 총리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예산을 24조원으로 언급했고, 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비용의 2배 수준이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담평수주 의혹 등은 적절치



14일 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이 국정감사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않으며 현지 조달율의 경우 국내 기업이 체코에 진출한 두산스코다파워도 현지조달율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법률 위반과 일방통행식 절차진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원전 운영사인 황 사장에게 원전 수명연장 절차의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관련 규정에는 주민 보호 대책이 반

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고 주민들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면서 “해당 자료에는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 있다.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주민 공청회 자료로 쓰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주민 보호 대책이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황 사장은 “(누락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럼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도 괜찮은 것이냐”고 묻자 황 사장은 “그게 아니라 초안에는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규정에는 분명히 (주민 보호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굉장히 문제가 크다”면서 “관련 규정에는 원전 수명 연장 관련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방사선환경영향) 평가하라고 돼 있으나, 적용이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주민 보호 대책이 누락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한수원이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산업부 입장을 추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취업난에 경제난 겪는 20대...국민연금 체납 증가

6개월 이상 체납자 8만4288명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20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국민연금 체납은 감소세에 있지만 취업난 등으로 인한 20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정수읍실순천)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6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한 20대는 8만4288명으로 전년 한해 동안의 체납자(8만1182명)보다 4%(3279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20대는 2019년 7만5538명→2021년 7만8604명→2023년 8만

144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체납자가 2019년 141만3852명에서 줄곧 감소해 지난 2023년 111만7338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20대에서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체납자(13개월 이상 체납자)도 마찬가지로, 올 6월까지 20대 이하 장기체납자는 3만8711명으로 전년 만에 전년(3만4772명) 수준을 넘어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작업복이 일상복으로...광주신세계, 워크웨어 선보여

광주신세계는 14일 “최근 육체 노동자들이 작업할 때 입을 옷을 뜻하는 ‘워크웨어’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워크웨어의 뛰어난 내구성, 불필요한 장식 생략 등 여러가지 특징 가운데, 올해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코듀로이’ 소재를 활용한 재킷이다. 코듀로이는 흔히 ‘골덴’으로 불리는 소재로 광주신세계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해당 소재를 활용한 의류를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신관 지하 1층에 오픈한 ‘드루우핏’은 워크웨어 트렌드에 맞춰 ‘헤리티지 헌팅 블루중 재킷’을 출시했다. 따뜻한 질감의 코듀로이 소재를 활용한 오버핏 실루엣으로 다양한 스타일 연출에 유용하다는 특징이 있다.

드루우핏은 오픈 기념으로 오는 31일까지 아우터 10% 할인 등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같은 층에 있는 ‘코드그라피’에서도 ‘코듀로이 카라 코트 워크자켓’을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간절기에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코듀로이 소재 카라와 실용적인 포켓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팀버랜드’ 역시 워크웨어 트렌드에 부합하는 워커부츠 외에도 뛰어난 기능성을 앞세운 브랜드로, 계절과 상관 없이 견고하게 신을 수 있는 다른 부츠와 의류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팀장은 “MZ세대가 ‘작업복’으로 여겨졌던 워크웨어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관련 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며 “코드그라피와 드루우핏 이외 다른 브랜드에서도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안전대책시설 정비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우선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대책시설을 일제 정비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14일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122곳을 우선으로, 오는 12월까지 47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안전대책시설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본부는 ‘상반기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저수용량 100만 t 이상 저수지 107개소와 포용조수량 1000만 t 이상 방조제 15곳 등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122곳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 바 있다. 전남본부는 이를 토대로 시설물 내 안전대책시설 정비에 상반기 22억원 투입에 이어 47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시설 보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대책시설은 ▲노후되고 훼손된 안전 입간판 ▲보행자와 차량 이용객 안전을 위한 난간 ▲철조망, 가드레일 등으로 총 103개소에 218개의 안전대책 시설물을 신규 설치하거나 정비 및 보수할 예정이다.

조영호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업기반시설물은 농업인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만큼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3.29 (+26.38)
↓ 코스닥	770.26 (-0.72)
↓ 금리 (국고채 3년)	2.938 (-0.009)
↑ 환율 (USD)	1358.40 (+8.90)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문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